

## BoB 8기 회고

7월부터 2차 프로젝트가 끝나는 12월까지 6개월간의 BoB 활동을 뒤돌아보니, 짧은 기간 동안 정보보안 인재로서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BoB에 지원할 후배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느낀 성장의 근거와 특별한 경험들 위주로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단계 집중 교육 기간에는 BoB 자소서에 기술한 대로 첫차를 타고 출석하여, 거의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BoB에서 함께 공부하는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에 정신적인 피로감도 느꼈습니다. 또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들을 2단계 프로젝트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느새 1단계 집중교육 기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저는 BoB에서 개발트랙으로 들어왔지만, 취약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리버싱, 웹, 디지털 포렌식 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센터에 출석하는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혼자 공부하면 일찍이 포기했을 것만 같던 정보보안의 기초체력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트랙 외에 다른 분야도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팀원이 본인의 출신 트랙에 맞게 본인의 퍼포먼스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이 분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담당 멘토님께서서는 트랙구분 없이 모든 팀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지시 덕분에 모든 팀원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할 분배 없이 모든 분야를 다룬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문단까지 장점들만 열거했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점을 능가하는 장점 2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연**입니다. BoB를 경험하지 않아도 공부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요즘 시대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본인의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모든 단점을 상쇄시킬뿐더러,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oB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의 학습법을 어깨너머 배우고, 세계적인 수준의 멘토들로부터 배우는 통찰력을 통해 올바른 정보보안 인재로서의 디딤돌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에 함께하는 팀원들과 고생하며 얻은 희로애락의 공감대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예로 저는 교수님 밑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있던 시절, 분기에 1번 정도 있는 연구실 세미나의 주제를 선정해 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왜 더 좋은 주제를 선정하지 못했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대한 시각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적고나니 저와 함께 BoB 8기를 진행한 교육생, 멘토, 연구원님들이 생각하는데, 이 후기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적고 싶습니다.